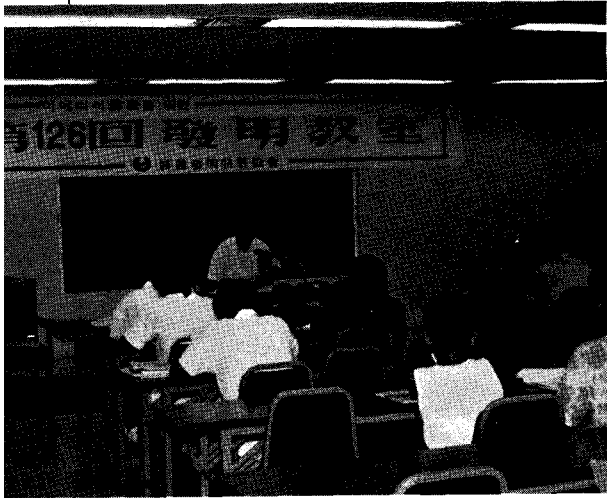


제126회

8월 13일

- ... 본회가 주최한 제 ...○
- ... 126회 발명교실이 지 ...○
- ... 난 8월 13일 발명장 ...○
- ... 러관 연구실에서 개 ...○
- ... 최되었다. 매월 둘째 ...○
- ... 토요일 오후 1시 30 ...○
- ... 분에 개최되는 발명 ...○
- ... 교실은 이 달에도 1 ...○
- ... 백여명이 참석하여 ...○
- ... 성황을 이루었다. ...○
- ... 이날 발명교실에 ...○
- ... 서는 가나식품기계 ...○



김밥 자동 제조장치 발명가

가나식품기계 이남재 사장

오직 일본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우리 기술로 뚫어 보자는 야심으로 이 장치를 개발하여 김밥의 원조인 일본시장에서조차도 인정받는 쾌거를 이룬 이사장은 역시 집념과 목적이 있는 발명가였다.

소학교 어린시절 소풍을 갈때면 가장 인기있는 음식은 뭐라해도 김밥이었다. 검은 김속에 하얀밥 그리고 그 가운데 그려진 여러가지 꽃모양의 김밥은 보기만해도 침이

저절로 넘어 간다.

이런 김밥을 만들기 위하여 조금은 색다른 발명을 한 발명가가 있다.

가나식품기계 대표인 이남재 사장. 그가 처음부터 발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모철강회사에 다니면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샐러리맨이었다. 언뜻보면 철과 김밥은 어울릴것 같지 않지만 적어도 이사장의 사고 방식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숨쉬고 있었다.

하루는 출장길에 속이 출출하여 분식점에 들러 김밥을 먹게 되었다. 김밥은 손으로

만 만드는줄 알았던 이사장은 분식집에서 기계를 이용하여 김밥을 만드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사장은 참 신기하기도 하여 분식집 주인에게 「저 기계는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라고 묻자, 주인은 「일본에서 수입한 거예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용되는 기계가 대다수 일본제라는 얘기도 들었다.

마침 이사장은 철강회사에 근무한 덕택에 기계의 구조나 장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터라

발명교실

성공사례 등 발표

- … 대표인 이남재 사장 …○
- … 의 성공사례발표와 …○
- … 김영길 변리사의 「산 …○
- … 업체신권제도」 해설 …○
- … 에 이어 새생각회 강 …○
- … 신묵 회장의 「발명의 …○
- … 발상기법」에 대한 강 …○
- … 의와 토론이 있었다. …○
- … 발명가의 성공사례를 …○
- … 간추려 소개한다. …○
- … <이두성 記> …○



일본인들에게 잠식 당해 있는 김밥 시장을 우리의 기술로 되찾고자 결심하였다.

그길로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김밥 만드는 기계에 매달렸다.

먼저 일본에서 수입한 기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점을 발견하였는데, 일본은 우리 나라와는 달리 김밥을 만들때 밥에 참기름을 넣지 않기 때문에 기름을 섞은 밥이 잘 미끄러진다는 것이고, 또한 속을 넣은 밥을 다시 수작업을 통하여 김을 말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로웠다.

원인은 찾아 내었다.

원인을 발견하였으니 해답만 만들어 내면 성공이었다.

이사장은 즉시 원인을 고치고자 실행에 들어갔다.

먼저 밥을 퍼주는 역할은 하는 벨트와 롤러 사이에서

밥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벨트에는 미세한 요철을 설치하고, 롤러표면에는 비틀림, 홈을 파서 마찰 계수를 높였다. 밥을 필요한 크기 만큼 일정하게 퍼는데 성공하였다.

이어서, 롤러의 회전수를 이용하여 김이 자동으로 밥을 싸도록 하는 장치도 개발하였다. 기계의 시간당 생산성도 높여 시간당 520개 정도의 밥을 만들도록 고안하였다. 만들어 놓고 보니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이사장은 곧바로 특허청에 출원을 마쳤다. 시제품을 가지고 시험운전도 해보았다.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자신감을 얻은 이사장은 국내시판에 들어갔다. 이사장이 만든 김밥 자동제조장치는 하나 둘씩 사람들의 입을 오르내리며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사장은 여기가 시작이었다. 처음 발명을 시작할 때부터 마음 먹었던건 일본시장이었다.

김밥의 원조가 일본이었으나 김밥을 만드는 기계만큼은 일본인에게 빼앗길 수 없었다. 이사장은 이 기계를 일본에 역수출 하기 시작하였다. 기술의 차이는 그 나라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었다.

지금은 비록 몇 안되는 종업원과 조그마한 사업장을 가지고 연구와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 조그만 장소에서 만들고 연구한 기계가 세계를 누빌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이사장은 이 무더운 여름 강의실을 시원하게 느낄 수 있게해 주었다. <♣> <李斗星 記>